

# '빨간머리 앤' 고향에 대규모 불교성지 조성

### 캐나다 대각불교회, 5월 둘째 주 개원식 거행

만화 '빨간머리 앤'의 고향으로 유명한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 PEI)에 한화 약 11억 5000만 원 가치의 대규모 불교 사원이 조성됐다.

캐나다 언론 'CBC뉴스'는 5월 2일(현지시간)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5월 둘째 주 주말에 대규모의 복합 불교사원을 개원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5000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12채의 건물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건물을 세우기 위해 공사가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원은 대각불교연구회(The Great Enlightenment Buddhist Institute Society, GEBIS)에서 8년에 걸쳐 건립했다. 현재 대각불교연구회에서 공부 중인 수백 명의 아시아출신 스님들은 개원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대각불교연구회 공식대변인 댄 스님은 "사원의 스님들은 PEI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과 어머니의 날이 있는 5월 둘째



만화 '빨간머리 앤'의 고향으로 유명한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에 대규모 불교 사원이 조성됐다. 출처=CBC뉴스

12채 건물 완공... 추가 건립 중  
수백 명 아시아승려들 수행 공간  
개원 전 주민 소통위해 공부 매진  
1800여 명 개원식 사전등록  
주요시설·수공예 조각 등 공개

주 일요일은 사원 개원식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날이다.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댄 스님은 "대다수의 스님들이 영어로 대화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원을 앞두고 상당한 긴장한 상태"라며 "갑작스럽게 많은 방문객이 오면 응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원을 방문하기 전 사전 등록을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이미 1800명의 사람들이 대각불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날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은 사원에서 하루 일과와 더불어 사원의 주요 시설물들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황금불상이 모셔진 중앙 법당과 500명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스님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등이다.

리우 스님은 "학생들이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불교 논쟁을 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수년간 PEI지역 주민들과 스님들 간 교류를 보여주는 이야기들과 활동사진들도 전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어머니의 날' 특별 행사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한편, 스님들은 버터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정교히 조각하는 전통 수공예 작업을 선보인다.

이에 스님들은 SNS를 통해 열린 홍보 중이다. 리우 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각불교연구회 사원에 놀러 오셔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세요"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리우 스님은 "이곳 스님들은 빵을 매우 잘 굽기로 유명하다. 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빵을 증정할 것"이라며 "사원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은 60~90분정도 걸린다.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중승려 범구, 황금 미라 되다 13세에 출가한 후 93년 간 고행해 온 푸호(Fuhou) 스님의 범구(法鑪; 서신)가 금으로 덮였다. 푸호 스님은 생전 염원에 따라 2012년 입적 후 미라 상태로 원통형 독에 보관됐으며, 지난 1월 대중에 공개됐다. 영국 신문 'The Independent'는 5월 2일(현지시간) "스님의 몸을 거스르 감싸고 옷칠을 한 뒤, 마침내 금박으로 덮였다"며 "푸호 스님은 불교 신자들을 위해 산꼭대기 유리함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The Independent 박아름 기자

## 호주 브리즈번 '불교세' 거세지나

### 월 28~30일 봉축 행사에 20만 명 다녀가 올 8월 인구조사서 불자인구수 통계결과 '주목'

호주 브리즈번에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호주 지역 언론 '브리즈번타임즈(brisbanetimes)'는 4월 30일(현지시간) "2011년 호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호주 브리즈번 불자 인구수는 침례교도 수와 대등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브리즈번에 사는 4만2227명이 자신을 불교도라고 답했으며, 4만 8천명이 침례교도라고 답했다.

이러 브리즈번타임즈는 "또한 현재 퀴즈랜드에 거주하는 6만60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불자라고 말한다"며 "오는 8월 발표되는 인구 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브리즈번타임즈는 4월 28~30일 브리즈번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20회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보도하며 "지난 주말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파크랜드에서 성대하게 열린 봉축행사는 불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라며 브리즈번에 불교 있는 불교 열풍을 보도했다.

브리즈번 청티엔 사원의 랄프 스미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축하하며 3월 동안 약 20만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며 "특히 올해 사원을 찾은 방문객만 전년대비 50퍼센트가 넘는데,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퀴즈랜드에서의 불교 위력을 과소평가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러 스님은 "호주 내에서 약 6만 6000명이 열혈 불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3~4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교에 매료돼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봉축행사를 보기 위해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불교의 위상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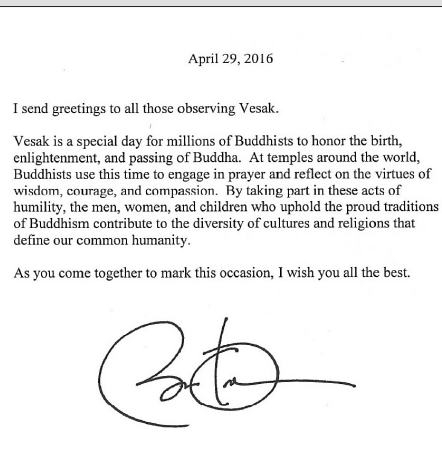
한편 사우스뱅크에서 열린 불교 페스티벌에는 태극권·용선(龍船) 경주·명상·아기부처 관육·쿵푸 시범·문화 역사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으며, 브리즈번타임즈는 한국인들의 사물놀이패 공연사진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호주 퀴즈랜드 브리즈번에서는 4월 28~30일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행사에서 사물놀이패 공연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진출처=브리즈번타임즈

##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첫 봉축메시지

### 4월 29일, 전미 불교도 위해 백악관배석법회추진위에 보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미 불교도들을 위해 봉축 메시지를 전했다.

'2016 백악관 배석법회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위원회 소속 윌리엄 아이켄(William Aiken) 사무총장 앞으로 봉축메시지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봉축메시지에서 "베사크(Vesak)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 성도, 그리고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수백만의 미국 불교도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세계 방방곡곡의 불교사원에서 불교도들은 베사크를 맞아 기도하고 지혜, 용기, 자비의 덕목을 반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겸손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유지하는 남성과 여성, 아이들은 보편적 인간성으로

로 정의되는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에 공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방불교의 베사크는 부처님 탄신과 성도, 열반을 함께 기념하는 불교계 최대 축제 중 하나다.

남방 율력체계로 5월 15일이지만 1956년 제4차 세계불교도의회(WFB) 연례총회에서 양력 5월에 보름달이 뜬 날을 베사크데일로 지정했다. 올해 베사크는 5월 21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보낸 봉축서신 원문.

한편 2016 백악관 배석법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인 성원 스님(위싱턴 연화장사 주지)은 "올해 백악관 배석법회는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곧 해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내년 1월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악관 배석법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케이티 페리, 연인 따라 불교개종?

### Mirror "올랜드 블룸, 불교 신행 독려"

팝가수 케이티 페리(Katy Perry·31·사진)가 연인 올랜드 블룸(Olando Bloom·39)을 따라 불교로 개종할 가능성을 내비춰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Mirror'는 4월 29일 케이티 페리·올랜드 블룸 커플이 지난 1월부터 공개 열애를 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케이티의 부모님이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티가 올랜드를 깊이 사랑해 개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녀는 전 남편인 러셀 브랜드(Russell Brand) 화유에도 무종교인으로 살아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Mirror'는 "불교에 매우 심취한 올랜드는 케이티에게 함께 신행생활에 임할 것을 권유하며, 그녀가 불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전남교구 총무원

총무원장 임호산  
부원장 박월인

총무국장 박보각	재무국장 황법진	규정국장 지정각
문사국장 김보겸		
원로회의장 김지암	원로회부회장 권금용	
지방총회의장 김시각	지방총회부회장 남법진	
총무분과위원장 유혜중	재무분과위원장 김승범	
규정분과위원장 장지명	교무분과위원장 박상중	
중앙총회의원 심지암 김원일 노보현 노자원 여지공 박법일 문연봉 박성법 김도안 정원문 서승휘		

■ 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 FAX 062)381-0944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방장 혜초 대종사  
회주 금용

원로의장 지허	비상수호대책위원장 지암	원로의원 금용 지암 일호 성천 설봉 성관 남파 원명
선원장 상명	울원장 도월	강원장 호명
강주목우	염불원장 호산	
총회의장 고종	총회의원 현오 혜중 정안 혜신 원문 도성 도안 원국 보각 원일 법성	
주지 호명	총무국장 승범	재무국장 청호 규정국장 명정
템플법사 등명	원주 흥안	총신도회장 하영철
여신도회장 김필순	불교대학장 윤태주	

신도회 일동

■ 주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종무소 061)754-5247, 5953 / 템플사무국 061)754-6250 / 팩스 061)754-5043